

# '어청도 낭만여행' 카훼리호 뱃고동 울리네

군산시가 어청도 프리미엄급 여객선 어청카훼리호와 함께 어청도 고유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이벤트어청도 낭만여행을 준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여행의 중심지인 어청도는 해발고도 100미터 안팎의 산지로 이루어져 산림이 울창하고 1912년 축조된 어청도 등대가 등록문화재 제378호로 지정되어 있는 관광의 보고이다.

공치산 한반도 지형, 치동모, 봉수대 등 아름다운 자연이 돋보이는 어청도는 불철 철새 주요 탐조 명소로도 꼽히고 있다. 이미 어청도 노을은 사진작가들에게 '노을맛집' 명품 출사지로 인정받은 지 오래다. 여기에 우럭찜, 우럭저국 봉장어 구이, 홍합탕수육, 돌도다리튀김, 월계장 등 풍부한 해산물 먹거리까지 가득하다.

어청도 낭만여행은 여객선 항로 이용 다변화를 위해 추진중인 해수부 '햇플벚길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27일~28일 이틀간 진행된다.



1. 군산 어청도 전경 2. 등록문화재 제378호 등대 3. 프리미엄급 여객선 어청카훼리호 모습



## 해수부 '햇플벚길 프로젝트'

### 군산, 27~28일 시범사업 진행 관광객·인플루언서 100여명 선상버스킹·섬트래킹 '만끽'

참가자들은 전국단위로 모집한 관광객, 인플루언서 등 총 100여명으로 1박2일간 어청도의 매력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된다.

먼저 지난 2021년 11월 국내최초 알미늄으로 건조된 신조 차도선 어

청카훼리호 여객선 안에서 쾌적한 여객실, 바다 조망, 다양한 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선상노을관광, 선상버스킹, 섬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타는 순간부터 여행의 설렘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어청도 입항 후에는 섬트래킹, 어청도 관광스팟 인종이벤트, 마을주민 주관 어청도 맛집·숙소 알리기를 통해 참여자 대상 할인을 추진하며, 어청도 특산물 판매장터, 야간별빛투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산해양경찰서가 여객선이 출항할 때부터 어청도 해안에 접근할 때까지 안전 항해 유도를 위해 함께 하며,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KOMSA)에서는 항로 모니터링 등 입체적인 항해 안전대책을 실행해 운항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여행 진행 후 실시 후 참가자 여행후기 업로드, 만족도 조사 및 어청

도 홍보를 지속해 나가며, 섬주민 의견 및 섬여행객 여행경험을 반영해 서비스 개선도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군산-어청도 항로 여행객 20%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반값운임 지원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하여 주민의 이동 편리성뿐만 아니라 관광객 증가에도 한몫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시는 '22년 전국최초로 전국민 대상 여객선 반값운임제 도입해 어청도-연도 항로분리 등 월거리 섬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섬발전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여객선 이용객이 전체평균 약 80% 증가하여 섬지역 관광수요 증대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군산=강경창기자

## 김제시-월촌지구대 합동 폭언·폭행 대비 모의훈련

김제시는 지난 24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김제 월촌지구대와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특이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김제=정승운기자

## 금강미래체험관, 28일까지 탄소중립 SNS인증샷 캠페인

최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이 SNS인증샷 캠페인을 실시한다.

25일 금강미래체험관에 따르면 '지구를 위한 7일간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캠페인을 통해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이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은 채식 식사와 분리배출, 텀블러 사용, 음식물 남기지 않기,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등을 들 수 있다. 대상은 지역 학생 및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캠페인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군산=이재봉기자

## '클린김제' 조성 환경정화 활동

김제시는 김제 전역을 대상으로 '클린김제만들기'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환경 정화 활동은 38개의 지역 사회단체, 주민단체와 공무원 400여 명이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돌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변의 어지러워진 환경을 정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보리밭 축제 등 지역 축제를 앞두고 김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청정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여 평소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제=정승운기자



## 부안해경-환경공단 등 4곳 해양오염사고 예방 워크숍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지난 23일~24일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일대에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워크숍은 부안해경,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 사무소, 해양자율방재단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해양오염 사고사례를 통한 방제 대응 방안, 사고 유형별 해안 방제 방법, 해양오염 방제장비 자체 시연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 관련 주제를 발표와 토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부안=최규현기자

# 김제 새만금 도시·스마트 농업 '성공 도약'

## 혁신정책자문위 전체회의 현안보고·발전방향 모색

김제시는 25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제시 혁신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김제시 혁신정책자문위원회는 20명의 전문가로 이뤄져 민생복지, 새만금성장도시, 미래농업, 교육문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시장 주요 사업들에 대한 자문

과 제언 등 시장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분과별 회의를 통해 '김제시 사회경제적 지원 및 육성 방안', '산후 건강증진 거점센터 건립 추진', '민경능계 유원지 조성사업', '새만금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산업용지 확대 및 조기개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시범사업', '김제 워킹블(walkable)관광도시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문 활

동이 진행됐다. 라승용 위원장은 "민선8기 2년간 김제시에서는 많은 도전과 성과를 이뤘다"며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 도약을 위해 계속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혁신정책자문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정책자문위원들과 적극 협력해 지역발전과 미래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창조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정승운기자

## 농어촌공 부안지사, 풍년·안전농사기원 통수식

### 기후변화대비 용수 공급 안전 사산 저수지 환경 정화 행사도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완중)는 부안군 부안을 신홍리에 위치한 무네미관리소에서 안전농사기원과 농업용수 공급 시작을 알리는 통수식과 사산저수지 환경정화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수식 행사는 운영대위원, 수리시

설감시원, 직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농업인들의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주곡 생산이란 목표로 2024년 재해없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최우선한다고 밝혔다.

매년 기록적인 강수량을 쏟아내고 있는 기후변화로 부터 부안군 관내에도 자유로울수가 없고,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 환경에 대비하여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는 물관리

상황실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리시설물 사전점검과 노후시설물 보수 등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수성 수자원관리부장은 직접 체감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튼튼한 식량주권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재해없는 배수관리를 위해 지사관내 양·배수장 시설물 가동점검을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부안=최규현기자

## 초록으로 물든 '군산풍당보리축제' 새달 2~4일 팡파르

### 미성동 행정센터 뒤 보리밭서 가족과 추억·낭만 정취 선물

군산풍당보리축제는 전국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군산현찰쌀보리가 추운 겨울을 이기고 보리 이삭을 터트리는 싱그러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시작한 지역축제다. <사진>

25일 군산시는 계절의 여왕 5월을 여는 제19회 군산풍당보리축제가 새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넓은 보리밭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풍당보리라 불리는 군산 현찰쌀보리는 지리적표시제 제49호로 등록된 지역 대표 농산물로 추제를 통해 홍보와 소비촉진, 브랜드 가치가 상승



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 보리밭에서 풍당풍당해!'라는 주제로 온통 초록으로 물든 축제장이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가족과의 추억과 낭만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보리밭 경관을 연

출하기 위해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으로 장소도 변경했다.

여기에 더해 시는 쾌적한 축제장 조성을 위해 사잇길마다 새만금 짙 버리대회에서 활용한 야자매트를 깔았으며, 이를 통해 자원재활용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군산=이재봉기자



군산시가 중국 엔타이시 기업인단과 국제무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군산-중국 엔타이시, 동반성장 '속도'

### 간담회 열고 국제무역 협력 카페리 항로 개설 포함 논의

군산시가 자매도시인 중국 엔타이시와 국제무역과 물류 분야에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5일 시는 리제 엔타이 중한페리 유한회사 사장보, 주여우장 저동 경제무역 유한회사 회장 등 총 14명의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엔타이시 기업인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군산시 홍보 동영상 상영과 산업단지 소개 등의 자리도

마련해 군산시 미래 발전의 비전과 최적의 기업투자 여건, 수출입 경쟁력을 갖춘 군산항의 매력 등을 소개했다.

중국 엔타이시 기업인단은 간담회를 마친 후 국제여객선터미널, 자동차 부두 및 GCT 등 군산항을 시찰하고 카페리 선사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군산과 엔타이 간 카페리 항로 개설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장영재 경제항만국장은 "올해로 자매도시 체결 30주년을 맞이한 군산시와 엔타이시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군산=강경창기자

## 군산 플리마켓 활성화 지원 힘쏟는다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등록·고유번호증 보유 집기류 대여와 홍보물 제작 1회당 최대 150만원 투입키로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군산시 플리마켓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플리마켓 활성화 지원사업은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꿈협동조합, 동국사길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총 13회 실시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단체이며 1회당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을 통해 플리마켓 운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면 활력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세부 지원내용은 플리마켓 진행에 필요한 집기류 대여, 홍보물 제작, 이벤트 비용이다.

신청 및 지원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공고·입찰란(문의063-443-82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골목상권의 정서를 담은 상시 플리마켓 운영을 통해 골목에 활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이재봉기자